

가파도에 잠녀 민속마을 "왜?"

문화재청 지난해 용역 결과 가파도 등 7개 마을 낙점
도 '잠녀문화 분산' 난색...서귀포시 복원 추진 제각각

등록 : 2012년 03월 09일 (금) 09:09:55
최종수정 : 2012년 03월 09일 (금) 09:09:5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문화재청이 민속마을 지정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도에 '제주잠녀(해녀)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결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가파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과의 절충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제주 잠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 등재 작업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한 해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양반 문화'중심의 민속마을을 △전통적 생업과 생업관련 경관이 보존된 마을 △민속 문화유산 마을 △민속적 생산·기술문화마을 등으로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보고'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민속마을지정다양화 기초조사 및 지정대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233개 마을 중 기초조사를 통해 50개 마을이 추려졌고 이후 1·2차에 걸친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 낙점된 7개 마을 중 제주도 서귀포시 가파도 마을이 잠녀를 주제로 한 테마마을로 낙점됐다.

문화재청은 지정 대상 마을에 대한 지자체와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12년도 지정추진 대상 민속마을을 선정하고 늦어도 올 10월까지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계획에 대한 도는 '탄소 없는 섬 육성 사업'추진 등 일부 민속 마을 조성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과 인근에 조성될 '해녀 문화전승센터', 앞서 민속마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던 안덕면 대평마을 등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우려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서귀포시가 2013년까지 가파도 내 잠녀 불턱과 할망당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미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속마을 지정을 위한 주민 공감대 여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민속마을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 예산이나 관광활성화 예산지원 등의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물을 임의로 개·보수하는 일 등이 제한된다. 먼저 민속마을로 지정된 안동하회마을이나 경주양동마을의 예처럼 방문객이 늘어나는 대신 주민 사생활 침해에 따른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지역적 특수성 등에서 가파도에 잠녀 민속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가파도에 잠녀민속마을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일 뿐 지정·운영과 관련한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해당 마을에 있다"고 설명했다.